현대삼호重 30억弗 수출탑 수상

오늘 무역의날 … 광주·전남 본사 기업 중 최초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황무수)이 30일 '30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광주·전남에 본사를 둔 기업 중에서는 최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9일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34억300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30일 열리는 제46회 무역의날 기념식에서 30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30억달러는 광주시 한해 예산(2009년 기준·2조 7천억원)보다 많고,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총액(2007년 기준) 3조 5천억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삼호중공업은 지난 2001년 4억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한데 이어, 2002년 7억달러, 2004년 10억달러 등 꾸준히 수출을 늘려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총 매출(3조7천500억원)의 95%를 수출로 달성했다.

창립 초기 4천800억원에 불과했던 연간 매출액도 출범 10년째를 맞으면서 급증, 올해는 8배가 넘는 4조2천억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규모도 4천500여명에서 1만1천여명으로 대폭 늘어난데다, 협력사까지 포함해 연간 지급된 급여만 1조원에 이를 정도여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역할도 크다.

현대삼호중공업의 이같은 성과는 선진화된 노사문화도 한몫했다.

만성적인 분규사업장이던 삼호중공업은 지난 2007년 이후 3년 연속 무분규 교섭타결을 이끌어 내는 등 안정적 노사관계가 정착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매출과 수익 증대,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등 실질적인 경영 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창립 초기 벌커와 탱커 위주의 단조로운 건조 선종을 LNG운반선, LPG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FPSO 등 모든 상선을 건조하는 등 다양화하면서 기업 체질을 강화한 것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경기 침체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동력이 됐다.

현대삼호중공업 한 관계자는 "10년 전 부도난 회사를 다시 살려낸 뒤 30억불 수출의 탑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게 돼 더없이 기쁘다"면서 "직원간 더욱 노력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흥겨운 아시아 음악인들 '아시아 음악교류 축제'가 29일 광주시 서구 빛고을 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해외 공연단체들이 축하공연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일본, 중국, 필리핀, 호주, 네팔, 인도 등 9개국 50여명의 예술인이 참가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야구장서도 영화보고 쇼핑한다

광주시 등 돔구장 민간투자 활성화 기대

경기장 문화·수익시설 허용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장 시설에 판매시설이나 관광 숙박시설과 같은 문화·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은 종류나 규모 제한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휴게시설 등 문화·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광주시 등 돔야구장 경기장 건립과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유수지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유수지 배수펌프장 안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빛日만평

- 김종두

어쨌거나 단군 뵐 낯이 없다

지방신문협회 뉴미디어사업단 창립

광주일보 등 9개 신문사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김종렬·부산일보 사장) 회원사 뉴미디어 분야 대표자들은 지난 27일 부산일보사 10층 회의실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뉴미디어사업단'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사진〉

뉴미디어사업단은 이날 출범을 계기로 뉴미디어 분야가 지역 신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뉴미디어사업단 회원사들은 앞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공동수익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 뉴미디어사업단 회장에는 부산일보 이명관 뉴미디어센터장이,부회장에는 매일신문 최미화 뉴미디어본부장과 전북일보 안봉주 부국장이 각각 선임됐다.

김종렬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제 신문도 통합미디어시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뉴미디어사업단이 지역 신문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광주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문, 전북일보,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제주일보 등 지역을 대표하는 9개 신문사로 구성되어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출자 자본금 900억 납입 완료

J프로젝트 '구성지구' 개발 본격화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6개 사업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구성지구' 출자사들의 법정자본금 납입이 완료단계에 들어서 개발사업 본격화가 기대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성지구 개발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의 총 법정자본금 900억 원에 대한 출자사 간 협의가 마무리돼 이르면 30일 자본금을 납입할 예정이다.

구성지구는 지난 5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에서 개발계획이 통과돼 정부승인 마지막 절차인 국무총리실 기업도시심의위원회(기도위) 상정을 위한 법정자본금 납입절차만 남겨놓고 출자사 간 협의가 진행돼왔다.

애초 지역건설사 위주였던 구성지구 SPC의 출자사 지분구조는 그동안 수차례 변동된 끝에 현재는 광주은행과 전남개발공사, 전남도가 21%를, 보성건설과 한양이 나머지 지분을 대부분 담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출자 참여가 논의됐었던 금융사인 신한·국민은행 등은 이번 법정자본금 납입에는 참여하지 않고 구성지구 도시기반 조성사업비인 8천953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지구의 개발면적은 21.87㎢로 J프로젝트 사업지구 6곳 중 가장 넓으며 도시기반사업비도 4천억 원 안팎인 다른 5개 지구에 비해 갑절이 넘는 8천953억 원으로 사업규모가 제일 크다. 이곳에는 4조9천억 원의 관광레저 시설비가 투입돼 해양스포츠센터와 바이오에너지파크, 남도음식문화촌, 골프장 등이 조성돼 인구 2만명이 거주하는 관광·레저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한편, J프로젝트 나머지 5개 지구 중 '삼포지구'는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장이 건설중이며 '삼호지구'는 개발계획이 기도위를 통과해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또 '부동지구'는 중도위 심의에 앞서 중앙부처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 밖에 '초송지구'는 개발사업자를 모집 중이며, 외자유치가 추진 중인 '송천지구'는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농어촌공사에서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유치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산구 진곡산단 진입로 내달 착공

광주시 광산구 진곡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오는 12월 착공된다. 이번 공사는 광산구 오선동(하남산단 6번로)에서 장성군 남면과 비아동을 거쳐 광주시 북구 광주과학기술원에 이르는 총연장 6㎞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1천567억원을 국고 지원받아 오는 2013년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시는 공사 구간을 2개 공구로 나눠 3.7㎞ 1공구는 오는 12월 착공하고, 나머지 구간 2.3㎞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10년 8월께 착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단 진입도로가 신설되면 산단 조성이 활성화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